

## 滿洲國領土의 中國歸屬 不當性에 관한 研究

### -文化領土論과 領土文化論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Unreasonableness that China had the Territorial Right of Manzhouguo

#### - Based on Cultural Territory Theory and Territory Cultural Theory -

신용우\* · 심우섭\*\* · 오원규\*\*\*

Shin, Yongwoo · Sim, woosop · Oh, Wonkyu

####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evaluating that South Korea has the territorial right of Manzhouguo with disconfirming that China had the territorial right of Manzhouguo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is study also suggests the necessity of territorial cultures with establishing the theory of cultural territories and territorial cultures.

The four main territorial cultures of Manzhouguo that are the burial culture, the place name cultural, the cadastral, and the folk culture were analyzed with Classifying territorial cultures. The results shows that territorial cultures of Manzhouguo is the same with territorial cultures of South Korea. Thus, This study suggests that territorial cultures of Manzhouguo should be vest to South Korea and not to China, because of the theory of cultural territories, which is that territorials can be defined with cultures and territorial cultures, which cultures can be defined with territorials.

Keywords: Territory, Country of Man-Ju, Cultural Territory Theory, Territory Cultural Theory, Burial Cultural, Place Name Cultural, Cadastre Cultural, Folk Cultural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세계지는 연합국 중심의 힘의 논리에 의해 국경이 결정되었다. 전쟁도발 당사자로 미국을 선제공격하여 전쟁 영역

을 넓혀나갔던 일본이 속한 아시아역시 그 현상을 피할 수 없었다. 동북아시아에 인접한 러시아는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국경을 넘어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을 건설함과 동시에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아이누족에게 반환하지 않고 강점한 채, 대한민국의 영토 중 일부에 해당하는 한반도의 북쪽에 진입해 들어왔다. 반면에 미국은 류큐족의 영토인 오키나와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아

\* 역사 소설가 historical novelist/칼럼니스트 columnist(First author: dudwk3437@hanmail.net)

\*\*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원장 LX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Institute president (Corresponding author: wssim@lx.or.kr)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팀장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team leader (wkoh3419@hanmail.net)

시아를 점령하면서 류큐제도의 영토권자인 류큐족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식민지가 이어졌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협정인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 유럽을 대표하여 참가한 영국은 홍콩을 통해서 아시아로 진출하려는 유럽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홍콩을 계속 점유하는 조건으로 이 모든 현상을 눈감아 주었고, 힘의 논리로는 유럽이나 미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후진국이던 아시아 각국은 소련과 미국을 필두로 하는 연합국에 의해 영토를 빼앗기고 말았다. 다만 아시아 국가 중 중국은 유일하게 자신들이 연합국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즉각 반환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세워, 자치구라는 이름하에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던 티베트를 비롯한 중국 식민지를 해방하지 않았고, 추가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해체된 만주국영토의 중국귀속이다. 그러나 만주국이 일본의 지배와 조종을 받은 어용국가라고 해서 일본의 패전과 함께 해체되고, 그 영토인 만주를 연합국 중 하나인 중국이 전리품처럼 자국에 귀속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낳고 있다. 왜냐하면 패전국이 어용국가라고 해서 승전국에 의해 일시에 해체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그 나라가 지배하던 영토를 어느 나라에 귀속시킬 것인지를 전쟁의 공과로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이다.

전쟁 등의 이유로 해체된 나라의 영토를 귀속시킬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영토가 간직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적인 특성에 의한 영토문화에 의해서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주국의 영토가 이러한 판단기준에 의해서 중국에 귀속되었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만주국이 중국에 귀속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또한 중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전후 문제를 처리하는 국제회담에 참여했던 국가라는 입장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귀속이 아니라 강점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귀속이 아니라 강점된 것이라면 만주국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과 동시에 중국의 식민지가 된 것이다. 만주국

의 영토 안에서 생활하고 있던 백성들은 국가와 자신들의 존재감을 잃었으며, 이것은 연합군임을 내세워 저지른 평화를 위장한 약탈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만주국 영토가 중국에 귀속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제시하고, 만주국영토가 귀속될 대상을 올바르게 규명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2.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만주문화가 생성된 고대부터 현대까지로 하며, 공간적 범위는 만주국이 있던 만주와 한족들이 생활해온 중국지역과 한반도로 하였다. 만주와 한반도 및 중국의 영토문화를 비교하여 문화적으로 만주국영토가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 것이 옳은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 1.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만주국 영토의 중국귀속에 대한 부당성을 문화영토론과 영토문화론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접근방법을 통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만주국영토의 중국귀속이 역사와 문화를 무시하고 연합국간의 이해득실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규명함으로써, 만주국영토의 중국귀속에 대한 부당성을 제시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1.2.3. 선행연구의 검토와 차별성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 관하여 RISS에서 만주국을 주제로 검색한 결과 학위논문 120여 편을 포함하여 700여 편의 논문과 1,600여편의 단행본이 검색되었다. 단행본은 만주국에 대한 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양한 논문들이 검색되었다. 그러나 만주국의 해체로 인한 영토의 중국귀속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문화영토론과 영토문화론에 의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논문은 찾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만주국 해체

로 인한 영토의 중국귀속에 대한 부당성을 제시하고, 문화적인 접근방식으로 해결방안을 규명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 하였다.

## 2. 文化領土論과 領土文化論

### 2.1. 文化영토론(文化領土論)

#### 2.1.1. 文化영토론의 개념

문화영토론이란, 강대국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 제3국의 영토를 침탈하여 형성된 지리적인 국경에 의해 인류의 평화가 파괴되는 것에 대항하여, 지리적인 국경을 넘어서 문화에 의해 영토를 정의함으로써 인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영토논리다. 문화라는 것이 인류의 생각과 말, 행동, 생활 등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임으로 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영토를 정의할 것이 아니라 인류가 살아온 문화에 의해서 영토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영토론을 공식적으로 처음 학계에 도입한 사람은 홍일식이다(홍일식 1985). 홍일식은 문화영토의 개념을 '민족생활 공간의 일체'로 보았다(홍일식 1983). 홍일식이 제시한 문화영토론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으로서의 영토가 아닌 역사적 맥락으로 인식되는 종축(縱軸)과 문화적 시야로 포괄되는 횡축(橫軸)이 서로 교차되는 개념이다(홍일식 1996). 서구사회의 서세동점(西勢東漸)에 의한 대립과 갈등의 표상인 현존하는 국경에서 벗어나 문화에 의해 영토가 정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홍일식은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찬란한 선진문화를 보유해 우리의 문화영토는 이미 고대부터 시작해서 A.D. 10세기경에는 일본과 중국의 동북부지방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으로 확대된 것을 언급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역사적 문화영토에 대한 수복 의지는 보이지 않고, 찬란한 문화를 보호·육성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영토를 넓혀야 한다는 미래지향적인 문화영토론에

치중하는 단점이 있다(홍일식 1987).

본 연구에서는 홍일식이 제시한 문화영토의 개념에서 진일보한 문화영토론을 도입하고자 한다. 현재 또는 미래의 문화영토만으로 영토의 문화주권자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고대부터 이어온 문화영토 역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역사적 맥락으로 관류되는 종축과 문화적 시야로 포괄되는 횡축이 서로 교차되는 개념인 문화영토론의 개념과 부합되며, 한 나라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지배자의 주권에 의해 설정된 지리적인 국경에 의한 영토를 개념적인 영토라고 한다면,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에 의해 구분되는 영토를 실질적인 영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신용우 외 2013).

따라서 '지리적인 국경이 아니라 문화에 의해 영토를 정의하는 것'이라는 문화영토론의 기본적인 개념과 '인간과 일정한 영토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화 활동의 결과물로 역사성을 동반하여 생성되는 영토문화'를 접목하여, 문화영토론은 '힘의 논리에 의해 인위적으로 설정된 지리적인 국경이 아니라 영토문화를 기반으로, 문화에 의해 영토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개념을 설정할 수 있다(신용우 2016).

#### 2.1.2. 文化영토론을 위한 선행 이론의 필요성

문화영토론이 문화에 의해 인류의 평화와 행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정한 영토에 대해서 그 영토가 간직한 문화에 대한 근원을 밝혀 그에 대한 문화주권자를 규명함으로써 문화영토를 정의해야 한다. 문화의 근원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화영토를 정의한다는 것은 오히려 왜곡된 사실을 양산하여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일정한 영토가 간직한 문화에 대한 문화주권자를 규명하여 문화영토를 정의한다면 영토의 실질적인 주권자를 판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문헌에서 과거 우리 영토의 우수한 문화주권을 바탕으로 영토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해 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안천은 '잠재적 영토관'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잠재

적 영토관은 역사적 산물이며, 과거 침략으로 잃은 영토를 수복하는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안천 1990). 유정갑은 '민족사적 생활영토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영토가 민족의 역사무대이자 생활무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영토가 만주를 포함하는 고토수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정갑 1991). 또한, 문화의 주인이 곧 영토의 주인이므로 문화영토론에 의해 우리나라의 문화영토를 수복해야 한다는(신용우 외 2013) 주장과, '생활권적 문화영토론'이라는 재해석을 통해 문화영토론을 확대·재정립해야 한다는(조병현 2007) 주장을 통해 볼 때, 공통적인 점은 역사성을 지닌 문화에 의해 영토를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영토론에 의해서 영토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역사성을 동반한 규정이 모호해 영토에 대한 문화주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영토문화론을 필요로 한다.

## 2.2. 영토문화론(領土文化論)

### 2.2.1. 영토문화론의 개념(概念)

영토문화란 '시간적으로는 문화의 교류가 서로 자유롭지 못하던 고대부터 그 영토에 정착한 사람들이 농경생활을 통해 영토를 개척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동일한 문화권에서 생활을 지속해온 시기의 산물이며, 내용적으로는 영토에 정착하고 개척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문화 산물로 영토에 보편적으로 분포된 문화'를 말한다. 따라서 문화에 의해 영토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역사성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영토문화에 의한 영토문화론이 필요하다. 영토문화론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화가 아니라 영토가 오랜 역사에 걸쳐서 이어온 영토문화에 의해 문화영토를 정의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따라서 영토문화론은 '영토문화의 실체를 분석함으로써 그 영토의 문화주권자를 규명하여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임을 정의하는 것'으로, 일정한 영토에 대한 영

토권자를 규명하기 위해서 문화영토론적 해석에 선행되는 역사적·문화적 본질을 재정립하는 과업으로 정의될 수 있다(신용우 2016).

### 2.2.2. 영토문화론의 필요성

영토문화론은 일정한 영토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민족 혹은 국가로 대변되는 특정한 집단과 그 영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영토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는 특정 집단 간에 영토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두 집단 이상이 서로 영토권을 주장하는 영토에 대해 영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일어난 시점에서는 판가름 할 수 없으므로 역사성과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즉, 영토를 선점하여 문화를 이어온 민족이나 국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영토를 선점하여 영토문화라는 왜곡할 수 없는 증거를 남겨놓은 민족이 실질적인 문화주권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에 의해 영토권자를 규명하는 영토문화론은 인류의 영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이론이다.

### 2.2.3. 영토문화의 분류

영토문화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분류요소를 토대로 하여 영토와 직결되는 특수요인을 별도로 추출할 필요가 있다(신용우 2016).

일반적인 관점에서 문화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유형문화와 풍습이나 종교 등 무형문화로 구분한다. 그러나 문화인류학에서는 문화를 용기문화(用器文化), 규범문화(規範文化), 관념문화(觀念文化)로 세분하고 있다. 용기문화는 사람이 생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일체의 용품과 무기 등을 말하는 것으로 문화와 문화 사이의 전수가 매우 빨리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규범문화는 주로 한 사회의 제도·관습·법률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용기문화처럼 빠르게 전수되지는 않지만, 상당기간 서로 교류하게 되면 동화되는 것이 보통이다. 관념문화는 고차원의 정신문화로서 그 민족 고유의 언어·종교·사상·신앙

등을 포괄하며, 관념문화는 문화와 문화의 교류를 통해서 도서로 동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문화의 주인인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홍일식 1987).

본 연구에서는 상기 두 가지의 문화 분류요소를 기준으로 만주의 매장문화(埋葬文化)와 지명문화(地名文化), 지적문화(地籍文化), 민속문화(民俗文化)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매장문화는 장례풍습과 같은 무형문화와 유적이거나 유물 등에서 보이는 유형문화가 결합된 문화이며, 풍습이라는 관념문화와 유물이라는 용기문화가 복합되어 일정한 지역의 자연적인 조건에 따라서 형성된 대표적인 영토문화다. 지명문화는 일정한 집단이 명명하여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형문화로 지명의 어원 및 의미 등을 추적하여 지명의 유래와 남아있는 현상을 규명하는 것으로,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를 밝힐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지적문화는 땅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규범문화이자 서류로 근거를 남기는 유형문화이며, 일정한 영토의 문화주권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지적의 변천과정 등을 토대로 영토문화의 진정한 권리자를 가름해 볼 수가 있다(신용우 2016).

민속 문화는 전통적으로 전래되는 문화로 과거의 문화를 현재에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성을 갖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가락으로 전해져 오는 음악 등의 무형문화와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 등의 유형문화가 복합된 문화이자 그 집단의 정서가 투영된 관념문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를 규명하는데 커다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3. 만주국에 대한 고찰

#### 3.1. 만주국의 건국배경

##### 3.1.1. 신해혁명과 일본의 지원

신해혁명은 1912년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현재 중국대륙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의 기반을 형성한 혁명이다. 쑨원(孫文)은 1905년 '중국 혁명동맹회'를 결성하고 청나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해 왔는데 결실을 맺은 것이다. 1911년 청나라가 민영이었던 철도를 국유화하여 그것을 담보로 외국에서 차관을 빌려옴으로써 재정난을 타개하려는 것에 반대하여 시작된 운동이 점점 확대되어 쓰촨성의 무장봉기로 발전한 것을 계기로 10월 10일 우창봉기로 인하여 신해혁명의 불길이 당겨졌다. 우창 봉기의 성공은 1개월여 만에 전국적으로 퍼져 각지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나 14개성이 독립을 선언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나라의 통치는 빠르게 붕괴되었다. 결국 1912년 1월 난징에서 쑨원을 임시 대통령으로 하는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청나라가 위안스카이에게 혁명군에 관한 일을 처리하도록 전권을 위임하였고, 중국의 분열을 우려한 쑨원이 위안스카이에게 총통직을 제안하여, 선통제의 퇴위로 청을 멸망시키는 대신 위안스카이가 총통이 되었다. 중국은 지금도 자신들의 나라를 세운 신해혁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창에서 최초로 봉기한 10월 10일을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신해혁명 기념일'로, 중화민국에서는 "쌍십절"로 기념한다. 따라서 신해혁명은 명실상부한 중국 건국을 위한 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해혁명의 목적은 멸만흥한(滅滿興漢) 혹은 멸청흥한(滅淸興漢)으로 청나라의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1850년에서 1864년까지 홍수전(洪秀全)이 종교를 앞세워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일으켰던 태평천국의 난(太平天國之亂)에서 구호로 채택했던 '봉천토 호격(奉天討胡檄)'으로, 하늘의 뜻을 받들어 오랑캐(만주족)를 토벌한다는 내용에서 기인했다. 따라서 태평천국의 난이나 신해혁명은 한족들이 청나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

신해혁명이 중국의 독립운동이라는 사실 이외에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의 직접적인 지원과 개입이었다. 신해혁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한 것은 일

본 우익의 대부라고 알려져 있는 도야마 미쓰루다(두산 백과 2016). 도야마 미쓰루는 쑨원과 장제스(蔣介石)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신해혁명이 성공함으로써 청나라와 한족중심의 중국이 분리되어야 각각의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혼란이 야기되는 틈을 이용해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해혁명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은 중국동맹회를 비롯한 중국인 이외에 외국인들도 적지 않았는데 특히 우메야 쇼키치(梅屋庄吉), 미야자키 도텐 등의 일본인들이 현저하게 많았다(위키백과 2017).

따라서 신해혁명은 한족 중심의 중국이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한 혁명이며, 신해혁명이 성공해서 중화민국을 탄생시켰으나 그것은 일본 우익인 도야마 미쓰루가 이끌고 있는 겐요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서 성공한 혁명이었다고 볼 수 있다.

### 3.1.2. 일본의 만주국 건국 음모와 투자

일본은 만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였다. 1920년대에 만주에 투자된 외국 자본 중에 약 70%가 일본 자본으로 만주철도를 건설하여 일본 제국 주의가 병탄한 대한제국을 기지로 삼아 중국대륙과의 전쟁을 수월하게 하자는 의도가 있었으며, 중국과 전쟁을 하는 자체가 전쟁의 승패와는 상관없이 만주를 수중에 넣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의 만주에 대한 욕심은 장쥘린(張作霖)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장쥘린은 청일 전쟁에 참여하여 청나라가 패망하자 고향인 봉천성(奉天省: 심양)으로 돌아가 자위부대를 조직하여 그 세력이 점점 커지자 동북3성을 독자적으로 지배하였고, 동북 3성을 독립정부처럼 운영하면서 베이징까지 진출하여 1926년에는 베이징에서 대원수직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장쥘린에게 베이징을 국민당에 넘겨주고 만주로 퇴각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장쥘린은 그 지시에 따랐다. 이것은 장쥘린이 일본에 의해 그 힘을 키울 수 있었고, 일본의 목적은 베이징이 아니라 만주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해혁명은 도야마 미쓰루의 겐요사를 통해서 지원한 반면 장쥘린은 일본이 직접 지원함으로써, 서로 각기 다른 방향에서 청나라의 후손과 중국을 지원하여 만주와 중국을 이분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일본이 만주를 지배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장쥘린에게 북경에서 철수할 것을 명령한 일본은, 1928년 6월 4일 장쥘린이 베이징에서 천진으로 철수하기 위해서 타고 오던 기차를 폭파하여 암살하였다. 일본 역사는 이 사건이 일본 정부의 계획은 아니었다고 전하지만, 장쥘린을 암살한 관동군 참모들이 군법 회의에 회부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사건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의 엄격한 일본군율로 볼 때 본국의 의도와 상관없이 관동군 참모들에 의해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들은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장쥘린의 임무는 동북3성을 장악하고 화북지방으로 영역을 넓히는 계획을 시험하는 것이 전부였고, 임무를 마치고 퇴각하는 그를 일본이 관동군 참모들을 내세워 계획적으로 제거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쥘린보다는 정통성이 있는 사람을 내세워 만주국을 건국하여 만주를 통치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명분이 설수 있었기 때문이다.

## 3.2. 만주국의 건국과 해체

### 3.2.1. 만주국의 건국

장쥘린의 암살로 인해 그의 아들 장쉐량(張學良)이 지위를 계승하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반감으로 장쉐량이 국민당 정부에 합류하자 일본의 만주정복 전략은 잠시 주춤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만주정복을 위해 1931년 9월 18일 만주철도 선로를 폭파하고 그 사건이 장쉐량 지휘하의 중국군에 의한 소행이라고 몰아붙이며 관동군이 만주 침략을 개시하였다. 1931년 10월 요녕성(遼寧省: 라오닝성) 서부에 있는 도시 금주(錦州: 진저우)에 대한 폭격을 시작으로 동북3성 전역을 장악하고,

1932년 장쉐량의 거점인 금주와 하얼빈을 점령하여 만주의 대부분 지역을 장악한 후 같은 해 11월에 천진(天津: 텐진)에 망명 중이던 청나라 마지막 황제 애신각라부의(愛新覺羅溥儀: 아이신기오로 푸이)를 탈출시켰다. 일본은 청나라의 전신인 금나라를 건국한 여진족이 만주족이라고 개명한 것과, 만주에 청나라의 전신인 금나라를 세웠던 것에서 착안하여, 청나라가 멸망한 만주에 만주족의 이름을 국호로 1932년 3월 9일 애신각라부를 국왕으로 추대하고 대동이라는 연호를 쓰는 새로운 국가인 만주국을 건국하였다.

### 3.2.2. 만주국의 해체

1945년 8월 6일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세가 연합군의 승리로 기울기 시작하자 소련군은 8월 8일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고 8월 9일 0시를 기해 일본이 건국한 만주국을 침공하는 만주전략공세작전을 개시하여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할 당시에는 이미 만주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고 있었다. 만주국은 8월 17일 총리대신 장징휘의 주재로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 만주국의 해체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8월 19일 관동군 사령관 야마타 오토조 대장이 항복하기 전날인 8월 18일 만주국의 황제 애신각라부이가 퇴위함으로써 해체되었다. 이후 소련은 8월 30일까지 만주지역과 한반도 북부에 있던 일본 관동군을 무장 해제시키고 11월에 만주를 중화민국에 반환하였다. 그리고 1949년 중국의 통일 이후부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만주국영토를 통치하게 되었다.

### 3.3. 만주국의 지리적 특징

일본이 대한제국을 을사늑약에 의해 국권을 상실시키고 가장 먼저 시행한 일은 대한제국의 역사를 연구하여 자신들이 지배하기 쉽도록 왜곡하는 일이었다.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1906년 이마니시 류(今西龍: 금서룡)를 불러들여 본격적인 역사왜곡을 위한 연구를 시

작하였다. 그 결과 대한제국의 영토가 고조선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서 대마도까지 이어지는 영토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한제국을 지배한다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만주까지 지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일본은 청나라는 만주족, 즉 여진족이 세운 나라로 여진족의 뿌리가 대한제국과 같은 민족임으로 당연히 청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중국을 지배하는 민족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만주를 포기 할 수 없었고, 대한제국을 병탄 한 후에 대륙으로 진출하는 데에는 만주를 통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만주철도 부설권을 갖기 위해서 1909년 간도협약을 통해서 만주 일부를 청나라에게 내주었다. 그러나 일본이 만주를 청나라에 넘겨 준 이면에는 만주가 청나라 영토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인식시켜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중국이 청나라로부터 독립하면 청나라는 자신들의 발상지인 만주로 돌아올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 때 만주를 지배하려면 만주와 중국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일본은 대한제국과 만주의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만주국을 건국해야만 했다. 만주국을 건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주에 터전을 잡고 있는 대한제국의 백성들과 만주에 살고 있는 만주족, 한반도에 살고 있는 대한제국의 백성들까지 연합하여 일본에 저항한다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만주국을 건국하는 것은 청나라와 조선의 갈등을 표출시켜 만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조선족과 만주족의 분열을 초래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그리고 비록 청나라가 패망하여 마지막 황제 부의가 천진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청나라의 발상지인 만주에 청나라 황제를 국왕으로 추대하여 국가를 세운다면 국제사회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Figure 1과 Figure 2에서 볼 수 있듯이 한반도를 제외한 영역에서는 고조선과 만주국의 영역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만주국은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대한제국의 선조들이 대대로 지켜온 영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조선의 영역과 다른 점은 고조선



Figure 1. A territory map of Gojoseon and Kingdom of Jin

은 연해주의 약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데 만주국에는 연해주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Figure 1과 같이 연해주의 절반 정도는 조선의 영토였으나 1860년 북경조약에 의해 조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청나라가 일방적으로 러시아에게 연해주를 넘겨줘 소련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3.4. 만주국 영토문화의 특성분석

#### 3.4.1. 매장문화의 특성분석

만주의 매장문화는 무덤 양식에서는 고인들이 대표적이며 무덤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비파형 단검이 대표적이다. 이른 시기의 고인들은 돌무지무덤과 병존하였으나 대부분의 고인들은 돌무지무덤보다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박진욱 1999) 지상에 판석을 3~4장 세워 돌곽을 만들고 그 위에 큰 뚜껑을 올려놓은 오덕형 고인돌과 지하에 돌상자 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 큰 무덤표식을 덮어 놓은 침촌형 고인돌이 있었다. 이 고인들의 분



Figure 2. A territory map of Manzhouguo

포를 보면 서쪽 경계선은 요하이교 남으로는 한반도 전역으로 남해안까지 이르고 있다(박진욱 1987).

고인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물은 꺼묻기 되어 있던 비파형 단검으로 모양이 옛날 악기인 비파처럼 생긴 것에서 유래하였다. 그러나 날이 비파처럼 생겼다고 모두 비파형 단검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비파형 단검이란 날의 형태가 비파모양으로 생겼을 뿐만 아니라, 검몸, 검자루, 검자루맞추개(가중기)를 따로 만들어서 조립하게 되어있는 단검이 비파형 단검이다. 비파형 단검의 분포지역은 한반도와 중국 동북부 지방으로 북쪽은 송화강 유역부터 남쪽은 한반도의 남해안까지 서쪽은 내몽골과의 경계선 부근부터 동쪽은 묵단강 상류 유역까지이고 서남쪽은 소릉하 서쪽인 난하 유역까지이다. 또한 검 날의 형태가 비파처럼 생겼다고 하더라도 검자루와 검몸이 붙어있는 주머니자루식 단검이나 비수식 단검은 비파형 단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주머니자루식 단검과 비수식 단검은 요서지방에서만 나왔으며 요동 및 한반도에서는 나온 예가 없다(박진욱 1987).

고인돌과 비파형 단검(비파형 동검)의 분포지역을 근거로 추정된 고조선의 유물지도는 Figure 3과 같다. 그리고 이 영역은 Figure 1의 고조선과 진국의(북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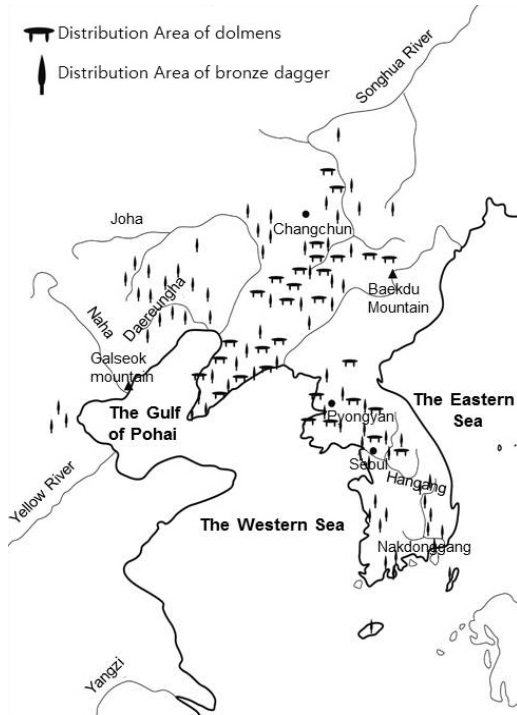


Figure 3. A distribution map of relics of Gojoseon and Kingdom of Jin

회과학원역사연구소 1989) 영역과 매우 비슷하여 만주를 포함해 한반도를 거쳐 대마도에까지 이른다. 또한 한반도 이남을 제외한 만주국의 영역을 표기한 Figure 2 과도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 3.4.2. 지명문화의 특성분석

만주국의 지명에 해당하는 만주는 본래 부족의 이름이었다. 「국서」를 고찰해 보면 만주(滿洲)는 본래 만주(滿珠)라고 했었고, 매년 서장에서 단서를 보냈는데 그 문서에서 만주황제를 <만주사리(曼珠師利)대황제>라고 불렀다. 그 뜻을 번역하면 만주(曼珠)인데 중국말로 '묘하고 길하고 상서롭다'는 뜻으로 지금은 만주(滿洲)라고 적는데, 주(洲)자의 뜻이 지명에 가깝기 때문에 가차하여 사용함으로써 서로 연관성이 있게 된 것이다(남주성 2010). 만주는 부족이름으로 지명이 아닌 만주족의 이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만주족이 생활터전으

로 삼았던 영토라는 것이 확실하다.

### 3.4.3. 지적문화의 특성분석

만주국의 영토가 만주였으므로 만주의 지적변천사를 알 수 있다. 만주는 고조선 이래 고구려를 거쳐 대진국(발해)시기까지 대한민국의 선조들이 통치했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조선 정조시대의 실학자인 유득공의 발해고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유득공은 발해고 서문에서 <이 때에 고려를 위하여 계책을 세우는 사람이 급히 발해사를 써서 이를 가지고 "왜 우리 발해 땅을 돌려주지 않는가? 발해 땅은 바로 고구려 땅이다"라고 여진족을 꾸짖은 뒤에 장군 한 명을 보내서 그 땅을 거두어 오게 하였다면 토문강 북쪽의 땅과 압록강 서쪽의 땅을 소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도 만주가 조선의 영토라는 인식이 팽배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대한제국 시대인 1900년과 1903년에 만주의 일부분인 서간도 및 북간도를 평안북도 및 함경도에 편입시켰으며, 1902년에는 고종황제가 이범윤을 간도시찰사로 파견하였다가 1903년 10월 간도관리사로 격상시켜 간도에서 농사를 짓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세금을 징수하였다. 그러나 1909년 일본이 만주철도부설권을 취득하기 위해 청나라와 맺은 간도협약에 의해 만주에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대한제국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오인되었다.

### 3.4.4. 민속문화의 특성분석

만주국 백성들이 생활하고 있던 만주의 민속문화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문화로는 아리랑이나 통소, 검무, 율놀이 등과 같은 민족 고유의 음악과 무용, 놀이 등이 있다. 중국이 아리랑은 중국무형문화재로 등재하고, 통소와 검무, 율놀이는 흑룡강성 무형문화재로 등재한 것을 보면 아직도 이 문화들이 만주지방에서 꽃피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민속문화들은 한반도의 민속문화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만주국의 영토문화의 특성평가와 중국귀속의 부당성

### 4.1. 만주국 영토문화의 특성평가

#### 4.1.1. 매장문화의 특성평가

만주국의 지리적인 특성과 같이 만주국의 영역은 고조선과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 나타나는 고인돌이라는 매장문화의 특성은 난하를 기점으로 한 요동과 요서의(북한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1989) 문화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고분에서 출토되는 대표적인 유물인 비파형 단검도 요동과 요서에서 출토되는 유물 양식이 서로 달라 전혀 다른 문화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만주의 매장문화인 고인돌과 비파형 단검의 양식 등 모든 영토문화는 대한민국의 한반도 영토문화와 일치하는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주의 매장문화로 볼 때 만주의 영토문화에 대한 문화주권자는 대한민국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 4.1.2. 지명문화의 특성평가

만주라는 지명이 한쪽에 의해 명명된 것이 아니라 여진족을 개명한 만주족의 족명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만주에서 생활했던 민족은 한족이 아니라 여진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청나라의 전신인 금나라의 역사를 기술한 『금사·세기』에 <금의 시조 함보는 고려에서 왔다고 하였고, 금나라의 태조가 요나라 군사를 격파하고 나서 발해인을 초유하면서 말하길 “여진과 발해는 본래 한 집안이다”라고 하였다>는(남주성 2010)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만주라는 지명을 명명한 여진족은 고려의 후손들이다. 따라서 만주는 한반도와 만주에서 생활하던 고조선과 고구려의 맥을 이어 건국한 고려 후손들의 고유한 영토였음을 알 수 있다.

#### 4.1.3. 지적문화의 특성평가

간도협약에 의해 만주의 지적이 청나라로 귀속되고

청나라의 후속국인 만주국이 중국에 귀속되었지만, 1952년 4월 28일에 중일화평조약(中日和平條約)을 맺어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일본과 중화민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협약 및 협정은 무효화했으므로 간도 협약 자체가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 만주의 지적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만주국이 해체되는 시점에서, 그 지적이 귀속되어야 할 국가를 문화와 역사에 의해서 구분하지 않고 승전국인 중국에 귀속시켰다는 것이다. 그것은 부당한 것으로 만주의 문화와 역사를 재검토함으로써 만주의 지적은 대한민국에 귀속시켜야 마땅하다.

#### 4.1.4. 민속문화의 특성평가

만주에 한반도와 동일한 민속문화가 발달해 있다는 것은 한반도와 동일한 문화권 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와 동일한 만주의 민속문화를 무형문화재로 등재하는 이유는 한반도의 문화와 만주의 문화를 억지로라도 구분지어 만주에 전해오는 민속 문화를 중국문화화 시킴으로써 만주의 문화를 중국 고유의 소수민족 문화로 삼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문화는 인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주의 민속문화가 한반도와 동일하다는 것은 만주의 영토문화에 대한 문화주권이 만주와 한반도에서 대대로 생활터전을 일궈온 대한민국의 선조들과 그 후손들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4.2. 만주국 중국 귀속의 부당성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만주의 영토문화는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영토문화와 일치한다. 따라서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는 영토문화론과 영토문화를 기반으로 문화에 의해서 영토가 정의되어야 한다는 문화영토론에 의해서 만주국의 영토였던 만주가 중국에 귀속된 것은 부당하며 만주는 대한민국에 귀속되어야 한다.

만주국영토의 중국귀속 부당성을 역사적으로 고찰

해 볼 때, 청나라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을 지배했던 역사로 대한민국의 선조들과 같은 뿌리인 여진족, 즉 만주족의 역사다. 만주국은 비록 일본의 도움을 받았지만, 청나라의 후손들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로 중국과는 별개인 일본 식민지였다. 제2차 대전의 종전과 함께 독립했거나 아니면 그 역사성이나 문화에 의해서 영토의 귀속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것은 신해혁명에 의해서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건국되었을 때 중화민국이 마지막 황제 푸이에게 대한 예우의 조치를 내린 것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대청 황제 퇴위 후의 우대에 관한 조항(關於大清皇帝辭位後優待之條件)>에 보면 ‘금일 대청 황제가 공화국체를 찬성한다고 선포했기에 우대조항을 정한다. 대청 황제가 퇴위한 후에도 존호는 계속 존속되며 폐기되지 않는다. 중화민국은 외국 군주를 대하는 예로써 그를 대한다.(후략)’라고 정하였다(위키백과 2017). 중화민국이 공화정을 취하면서 황실에 대한 예우가 자국의 황실에게 대하는 예우가 아니라 외국 군주를 대하는 예로써 대한다는 것이다. 결국 푸이는 중화민국에게는 외국 군주 중 하나였을 뿐이었고, 암에 걸려서도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다가 만주족과 한족의 화합을 목적으로 한 저우언라이(周恩來)의 배려로 병원에 입원했으나, 말기 암으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중국은 승전국의 일원으로 자신들을 지배했던 청나라 후손들이 건국한 만주국이 독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만주는 고조선 이래 고구려와 대진국이 생활하면서 중국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던 영토다. 수나라와 당나라를 이어가면서 만주를 정복하고 싶어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막대한 손실만 입었다.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멸망의 원인 중 가장 크게 꼽히는 것이 고구려 원정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만주국을 독립시키거나 만주국영토를 역사나 문화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귀속시켜 자신들의 선조들이 당했던 화의 근원을 남겨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만주국영토를 중국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여 결국 그 주장을 관철시켰

다. 그러나 그것은 패전국 일본의 식민지를 승전국이 대신해서 지배하고 식민지로 삼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위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에 의한 힘의 논리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주국영토문제를 처리했다면 만주국영토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로 귀속되었어야 한다. 만일 1945년 일본의 패망과 함께 대한민국이 광복되었을 때 만주국영토가 중국에 귀속되지 않고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면, 대한민국은 남북분단이냐 6·25와 같은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인류가 역사와 문화에 의한 영토논리를 거스르고 힘의 논리에 의해 만주국영토를 전리품처럼 승전국 중국에 귀속시킴으로써 씻을 수 없는 비극을 자초하였다.

또한 만주국영토가 대한민국의 영토로 귀속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한 것이 아니라 미·영·소·중이 합의한 포츠담 선언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당시 중국의 장제스는 만주를 차지하고, 소련은 우리 영토인 연해주를 차지한 상태에서 한반도의 반쪽마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장제스의 의견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미국은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를 세우는 문제가 시급했었고, 영국은 홍콩을 잃지 않으려고 장제스의 말에 무조건 찬성을 하였을 것이다. 인류의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한 문화와 역사에 의한 영토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한 영토분할이 연합국이라는 패권주의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했던 나라라고 만주국영토를 중국에 귀속시켰다면 그것은 일본영토가 대한민국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것이 없다.

## 5. 결론

### 5.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제2차 대전의 종전과 함께 해체된 패전

국 일본의 어용국가인 만주국영토가 승전국인 중국에 귀속된 것에 대한 부당성을 문화영토론과 영토문화론에 의해서 규명하는 것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지리적인 국경이 아닌, 영토문화를 기반으로 문화에 의해서 영토를 정의하는 것'이라는 문화영토론과, 문화영토론에 의해서 영토를 정의하기 위해서 선행하는 이론으로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는 영토문화론을 정립하였다. 또한 만주국의 건국과 해체 및 만주국의 지리적 특징과 만주의 영토문화 중에서 매장문화, 지명문화, 지적문화, 민속문화의 특성을 분석하고, 만주의 영토문화에 대한 특성을 평가하여 만주의 영토문화는 대한민국의 영토문화와 동일한 문화임을 규명하여 만주국영토의 중국귀속 부당성을 정립(定立)함으로써 만주국영토는 대한민국에 귀속되어야 하는 정당성을 천명하였다.

역사적·문화적으로 볼 때 만주국은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킨 후 대한민국에 귀속시키거나, 한반도와 만주에 각각의 자치주를 두어 연방국가로 존재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연합국에 속해 있던 승전국들은 각각의 영토에 대한 욕심이 앞서 영토 나눠 먹기식으로 만주국영토를 중국에 귀속시켰다. 만주가 승전국 중국에 귀속되는 것은 물론 중국이 병탄하고 있는 티베트를 비롯한 자치국들에 대한 지속적인 병탄의 보답으로 영국은 홍콩을 1997년 6월까지 지배했고, 러시아는 지금도 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아이누족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은 1879년 일본이 병탄한 류큐제국의 영토인 오키나와를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독립시키지 않고 패전국인 일본 영토로 귀속시키고 자신들의 군사기지로 활용하는 패권주의의 표상을 보이고 있다. 그 덕분에 일본은 패전국이면서도 아이누족의 영토인 홋카이도와 류큐족의 영토인 오키나와 등을 병탄한 채 최고의 수혜국 지위에 있으며, 가장 피해를 본 대한민국은 만주를 중국에게 강점당한 채 항의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일정한 권력

의 위세에 눌려서 사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 그 한계에 부딪히는 날에는 서로가 분리되어 문화전쟁으로 이어지고 문화전쟁은 가장 참혹한 전쟁을 불러온다는 것을 인류는 수도 없이 경험해 왔다. 지금이라도 만주국의 후예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스스로 귀속되고자 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류의 존엄성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인류평화의 초석을 다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 5.2. 연구의 한계와 제언

본 연구에서는 만주국영토의 중국귀속에 대한 부당성을 규명하고 문화영토론과 영토문화론에 의해서 만주국영토가 대한민국에 귀속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고, 후속 연구에서는 반드시 해결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만주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선포하여야 한다. 고조선의 후손인 대한민국 선조들의 생활터전이었던 만주가 중국에 강점당한 것을 알면서도 침묵한다는 것은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영토분쟁지역으로 선포함으로써 지금은 당장 영토를 수복할 수 없더라도 한반도의 남북이 통일되어 국력이 신장될 때 수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통해 지침서를 만들고 헌법에 명시된 영토의 한계를 수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만주로부터 대마도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였다. 그 영토를 잃어버린 것이 대마도는 1869년이요 만주는 1945년이다. 선조들이 물려준 광활한 영토를 잃어버리고 그에 대한 수복의 기틀마저 마련해 놓지 않는다면, 영토를 물려준 선조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며, 후손들에게는 대한민국 영토의 진실을 전하지도 않고 왜곡하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s

- 남주성. 2010. 흥정만주원류고 글모아출판사, p. 11-50.
- Nam JS. 2010. *Heumjeongmanjuwonlyugo, Geulmoapress*, p. 11-50.
- 박진욱. 1987. 비파형단검문화에 관한 연구(비파형단검 문화의 발원지와 창조자에 대하여).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p. 33-51.
- Park JW. 1987. *A Study for Bronzedagger Culture*. Kwahak Paekkwaja Sajon Press, p. 33-51.
- 박진욱. 1999. 조선 고대 및 중세 초기 사 연구(고조선의 성립에 대하여). 백산자료원, p. 5.
- Park JW. 1999. *A Study for history of ancient times and early Middle Ages of Gojoseon*. paeksan Press, p. 5
- 북한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1989. 조선고대사. 한마당, p. 103-176.
- Institute for Historical Research, North Korean Academy of Social Sciences. 1989. *Ancient History of Joseon*. Hanmadang press, p. 103-176.
- 신용우, 김태식. 2013. 문화적 접근에 의한 대마도의 영토 근거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1(1): 99-121.
- Shin YW, Kim TS. 2013. A Study on Tsushima's Territorial in the Cultural Approach Evidence. *KRES*. 31(1):99-121.
- 신용우, 오원규. 2014. 간도의 우리문화와 중국의 왜곡에 관한 대응 방안 연구. 지적. 44(2): 25-44.
- Shin YW, Oh WK. 2014. A Study on Indigenous Culture of Gando and Countermeasure against China's Distorting Action.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44(2): 25-44.
- 신용우. 2016. 대마도의 영토권. 글로벌컨텐츠그룹, p. 42-81.
- Shin YW. *Territorial rights of Daemado*. Global contents Group press, p. 42-81.
- 신용우. 2016. 문화영토론에 의한 대마도의 영토권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일대학교.
- Shin YW. 2016. *A Study on Territorial Rights of Deama-Do by the Cultural Territorials* [dissertation]. Kyungil University.
- 안천. 1990. 만주는 우리 땅이다. 인간사랑, p. 46-49.
- An C. 1990. *Manchuria is our territory*. Human love press, p. 46-49.
- 유정갑. 1991. 북방영토론. 범경출판사, p.34-39.
- Yu JG. 1991. *The study of Northern territory*. beobgyeong press, p.34-39.
- 조병현. 2007. 지적학적 접근방법에 의한 북방영토문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일대학교. p. 140-141.
- Joe BH. 2007. *A Study on the Problems of Northern territory with cadastral approach method*. [dissertation]. Kyungil University. p. 140-141.
- 홍일식. 1983. 새로운 문화영토의 개념과 그 전망. 영토문제연구. 1:141-145.
- Hong IS. 1983. Concept and Prospect of a New Cultural Territory. *Territorial Research*. 1:141-145.
- 홍일식. 1985. 문화영토의 개념과 해외동포의 역할. 영토문제연구. 2:1-12.
- Hong IS. 1985. The concept of Cultural Territory, and the role of Overseas Koreans. *Territorial Research*. 2:1-12.
- 홍일식. 1987. 문화영토시대의 도래와 한국문화의 전망. 문화영토시대의 민족문화. 육문사, p. 458-459.
- Hong IS. 1996. *Retrospect and prospect of the thory of cultural territory*. Nanam Press, p. 103-176.
- 홍일식. 1987. 현대생활과 전통문화, 문화영토시대의 민족문화. 육문사, p. 357-358.
- Hong IS. 1987. *Modern life and traditional culture*.

- Youk Mon Press, p. 458-459.
- 홍일식. 1996. 문화영토론의 회고와 전망. 21세기와 한국 문화, 나남출판사, p. 103-176.
- Hong IS. 1996. *Retrospect and prospect of the thory of cultural territory*. Nanam Press, p. 103-176.
- 두산백과. 2016. 도야마 미쓰루 [인터넷].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05159&cid=40942&categoryId=33416]. Last accessed 8 January 2016.
- Doopedia. 2016. Touyama Mitsuru [Interent].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05159&cid=40942&categoryId=33416]. Last accessed 8 January 2016.
- 위키백과. 2017. 신해혁명 [인터넷]. [https://ko.wikipedia.org/wiki/%EC%8B%A0%ED%95%B4%ED%98%81%EB%AA%85]. Last accessed 8 January 2016.
- Wikipedia. 2017. Chinese Revolution [Interent]. [https://ko.wikipedia.org/wiki/%EC%8B%A0%ED%95%B4%ED%98%81%EB%AA%85]. Last accessed 8 January 2016.
- 
- 2017년 4월 20일 원고접수(Received)  
2017년 6월 07일 1차심사(1st Reviewed)  
2017년 6월 20일 게재확정(Accepted)

### 초 록

본 연구는 1932년 일본에 의해 건국되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해체된 만주국 영토가 중국에 귀속된 것에 대한 부당성을 규명하고, 만주국영토가 문화영토론과 영토문화론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귀속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밝히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화영토론과 영토문화론의 개념을 정립하고 영토문화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영토문화의 분류를 통해서 만주국의 영토문화중 대표적인 영토문화인 매장문화, 지명문화, 지적문화, 민속문화의 특성을 조사하여 분석·평가하고, 평가결과에 의해 만주국의 영토문화는 대한민국의 영토문화와 동일하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문화에 의해서 영토가 정의되어야 한다는 문화영토론과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영토문화론의 이론에 근거해 만주국영토가 중국에 귀속된 것에 대한 부당성을 규명하고, 만주국영토가 대한민국에 귀속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영토, 만주국, 문화영토론, 영토문화론, 매장문화, 지명문화, 지적문화, 민속문화